

# 남구, 국·시비 126억 확충 '지역발전 도모'

### 올해 특별교부세·교부금 통해 현안사업 78건 추진 진월 운동장·양림동 청년창업소 등 주민 숙원 해소

광주 남구가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정부 및 광주시를 대상으로 활발한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 126억원 가량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책방향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결실을 맺고 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정부 및 광주시를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 교부금의 규모는 각각 64억4천800

만원과 61억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및 광주시를 상대로 활발한 재원 확보 노력을 펼쳐 거둬들인 127억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진월 운동장 및 양림동 청년창업소 건립을 위해 각각 5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국가 정책사업 일환으로 건의한 효덕IC 인근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역 개선 사업 등 총 23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대지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와 마을 주차장 조성, 남광교-양림교 확장 구조물 보수·보강, 구소·신장 마을 하수도 정비 등 각종 현안 및 재난 관련 사업을 연달아 추진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올 한해 광주시에 남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구정 현안사업을 건의해 총 55건이 특별 교부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시설인 남구 문예회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대촌동 관내 경로당 보수, 남구종합청사 옥외 피난계단 설

치, 남구 여성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 보강, 봉선 근린공원 환경정비, 진월동 도로 보수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남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비롯해 지역민 숙원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광주시를 통한 재원 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더 활발한 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최근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지방자치단체로는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 총 5건 12개 단위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 우리동네 의원을 소개합니다-기대서 북구의원

## 집행부 견제·감시역할과 더불어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앞장설 것

언제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힘쓴 기대서 북구 북구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사진)은 지역에서 '북구의 불도저'로 통한다.

잘못된 구정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강한 추진력으로 지역 현안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어서다.

기 의원은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보았듯이 광장과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불신을 받아왔던 정치가 우리사회의 모든 범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게 됐다"며 "정치적 격변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생활과 밀접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에 자조적 성찰을 하며 내 삶의 주변, 가장 작은 마을 단위부터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구의원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생활정치인'이 되겠다는 그의 정치철학은 의정 활동에서부터 나타난다.

최근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존 영세상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사전 방지하고자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CCTV 설치, 우범지대 보안 등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정과 관련해서는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부위원장 보조금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와 부적절한 경로당 허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 견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기 의원은 "지역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집행부에게는 간간하지만 북구발전을 위해서라면 감시와 견제 역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민정서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을 비롯해 구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혁신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통해 행복북구 건설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북구장학회, 제12회 장학증서 수여식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한 (재)광주북구장학회(이사장 박치영)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20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 일 북구의회 부의장, 장학회 임원, 학생,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북구 제공

###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평가 대상 북구, 11개 단지 우수아파트 선정

광주 북구는 22일 "광주시가 실시한 '2019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평가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에서 관내 11개 단지가 우수아파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에 12개 단지가 참여해 대상, 최우수상(2), 우수상(3), 장려상(5) 등 11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총 8천400만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우수아파트 현판을 받게 됐다.

## 북구, 건강정책 수립 빅데이터 분석

### 만성질환·치매현황 등 4개 분야

광주 북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개년 의료이용지표와 연구자료(2014-2018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동별 ▲건강관리 수준 ▲만성질환현황 ▲치매현황 ▲사업장별 건강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먼저 건강관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 기준 북구의 건강관리 수준은 양호하나 분석의 근거가 되는 세부 5종의 지표 중 대사증후군 발견율과 복부 비만을

이 다소 높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만성질환현황은 세부 9종의 지표 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등 순으로 많았다.

2018년 기준 북구의 치매 환자는 여자(62%)가 남자(38%)보다 1.5배 이상 많았고, 80대 이상이 57.45%를 차지했다. 질환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72%), 혈관성(12%), 기타(16%)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은 운수업, 통신업, 건설업 등의 직종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

역별 건강관리지도를 제작했다. 향후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 등 건강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특화사업 및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 '북구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단순치료 중심이 아닌 사전 진단, 예방, 맞춤형 정보제공 등 건강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실시했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 보건 서비스를 실시해 지역 간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북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사업 '호응'

###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광주 북구는 22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사업'은 매출 하락 및 사업부진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 간판 제작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업종전환이나 업종추가를 고민하는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권 및 고객 분석, 마케팅 방법, 사업아이템 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새로운 업종의 매출증대 기법 마련을 위한 간판 제작을 지원했다.

특히 북구는 올해 실시한 소상공인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요구가 많았던 시설개선 분야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 종합 컨설팅 사업'과 연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환준기자

### 남구,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광주 남구는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시스템에 신용카드 및 모바일을 통한 정산 기능을 갖춘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또 택시개발로 인구 유입이 증가한 효천1지구 거주민들이 각종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입암동 택시

지구 한 상가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새롭게 설치해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남구 관내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는 총 10대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을 통한 간편 결제까지 가능해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수기자

**S.L.T.**  
Silver Land Treadmill  
www.slhealth.co.kr

태하러닝머신·다이나포스 - 웨이트기구 광주전남지사 헬스 & 실버랜드

## 목포 / 순천 / 여수 대리점 모집

# 대한민국 헬스기구 대표 브랜드

헬스클럽 러닝머신(태하) 보상판매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 062)653-414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주월동) ☎ 062)651-9944~3